

자기 참조적 출처 기억에서의 자기 긍정 편향*

김경미 이도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출처 점검 과제(source monitoring task)를 사용하여 자기 긍정 편향(self-positivity bias)의 영향으로 인해 출처 기억에서 자기 참조 효과(self-reference effect)의 크기가 기억 내용의 정서가에 따라 달라지는 지 살펴보았다. 참가자들이 자기 참조 및 타인 참조 부호화 조건에서 단어들을 학습한 직후 기억 검사를 받았던 실험 1에서는 긍정 형용사에 비해 부정 형용사에 대한 출처 기억에서 자기 참조 효과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학습과 검사 사이에 24시간의 파지 간격을 둔 실험 2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더욱 극대화되어 부정적 단어에 대한 출처 기억에서 자기 참조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기 긍정 편향으로 인해 동일 정서가의 정보일지라도 자신과의 관련성에 따라 그 출처가 기억되는 양상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자아를 참조하여 정보를 처리(self-referential processing)하는 것이 늘 더 정확한 기억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며, 주로 부정적 측면에서 논의되어 온 기억 편파 및 왜곡이 자기 고양 동기의 실현 및 긍정적 자기 개념의 유지 등을 돕는 순기능적 역할 또한 수행할 수 있음을 밝혔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자기 긍정 편향, 자기 참조 효과, 출처 기억, 출처 감시, 기억 편향

외부 환경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시공간적으로 연속적인 자아(自我)를 인식하고 자기 자신과 외부 자극을 구분하는 것은 인간만이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정신작용이다(Damasio, 1999; Neisser, 1988). 자아는 경험의 주체로서 의식, 의사결정, 공감 등 다양한 인지적, 사회적 행동에 관여하므로 자아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는 것은 심리학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왔다. 이에 따라 자아 표상의 구성요소와 그 발달 과정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의 각 단계에서 발현되는 자아의 특성에 관하

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 중 특히 자아의 인지적 특성에 관해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어 온 분야로서 기억 연구를 들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을 참조했던 정보를 그렇지 않았던 정보에 비해 더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 자기 참조 효과(self-reference effect; Rogers, Kuiper, & Kirker, 1977)라고 한다. 예를 들어, 참가자들은 "대통령은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또는 "'부지런한'은 '꾸준한'과 비슷한 단어입니까?"라는 질문에 응답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32A-2009-1-H00008).
† 교신저자: 이도준,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292,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E-mail: dojoon.yi@yonsei.ac.kr

했을 때보다 "당신은 '부지런한' 사람입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했을 때, '부지런한'이라는 형용사를 더 정확하게 기억한다. 이러한 현상은 실험 자극, 기억 검사의 유형, 실험 방법 등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매우 일관적으로 관찰되어 왔다(Bower & Gilligan, 1979; Maki & McCaul, 1985; Symons & Johnson, 1997). 특히, 자기 참조 효과는 참가자들에게 자기 참조적 처리에 관한 지시를 전혀 하지 않는 우연 학습 상황(예, 자신 또는 타인의 이름을 중심으로 위 혹은 아래에 나타난 형용사의 위치 판단 과제)에서도 관찰된 바 있다(Turk, Cunningham, & Macrae, 2008). 이러한 결과들은 자기 도식(self-schemata; Markus, 1977) 즉, 자아에 관한 정보들만을 선별적으로 처리하는 인지적 도식이 정보 처리 과정에서 독특한 지위를 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이 접하는 정보의 상당수는 자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도식은 많은 양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조직, 평가 및 표상하도록 돕는다(Markus, 1977; Kuiper & Rogers, 1979).

기억을 통해 과거의 경험이 현재와 미래의 행동에 반영되고, 나아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연속성 상의 동일 존재임을 지각하게 된다는 점에서 자기 개념의 형성 및 유지에 있어 기억이 담당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인간의 기억은 경험을 있는 그대로 저장한 후 필요시 완벽히 동일한 형태로 재생하는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쇠잔, 망각될 뿐만 아니라 기억이 인출되는 당시의 내적 그리고 외적 맥락으로 인해 재구성(reconstruction)되거나 왜곡되는 등 불완전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Schacter, 1999). 이러한 기억의 재구성적 특성은 자아와 기억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동기나 욕구, 신념 등 개인의 내적 요소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바람직한 자기상(self image)을 유지하거나 촉진하고자 하는 자기 고양(self-enhancement) 동기는 개인이 지닌 가장 강력한 내적 동기 중 하나이다(Sedikides, 1993). 자기 고양 동기는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 표출되는데, 특히 사람들이 성격, 재능, 사회적 기술, 나아가 건강 상태에 이르기가

자 자신이 가진 특성들을 실제에 비해 훨씬 더 긍정적으로 과장하여 지각함과 동시에 자신의 부정적 특징들은 과소평가하여 지각하는 현상을 일컬어 자기 긍정 편향(self-positivity bias)이라고 한다. 이러한 편향은 스스로를 남과 비교하는 경우에 더욱 강조되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사람들은 평균적인 다른 사람들에 비해 능력 및 자질 측면의 긍정적 특성에 대해서는 자신이 이러한 속성을 더 많이 지녔다고 지각하는 반면 부정적 특성은 자신에 비해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경향을 보인다(better-than-average effect; Alicke, Klotz, Breitenbecher, Yurak, & Vredenburg, 1995). 이러한 경향은 자신이 남들에 비해 더 행복할 것이며 불행한 일 또한 덜 겪으리라 예상하는 미래 낙관적 편향(optimistic bias; Weinstein, 1989; Weinstein & Klein, 1996)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자기 긍정 편향은 지나치게 현실을 왜곡하는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존감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개인의 정신 건강 및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Taylor, Lerner, Sherman, Sage, & McDowell, 2003).

자기 긍정 편향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하는 바는 이러한 편향이 개인의 자아에 대한 지각뿐만 아니라 자전적 기억(autobiographical memory)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낮은 학점을 실제보다 높게 기억하거나(Bahrick, Hall, & Berger, 1996) 과거의 성공 경험을 실제 경험에 비해 더 쉽고 정확히 떠올리는 등(Silverman, 1964), 자신의 동기에 따라 정보를 선택적으로 기억하거나 특정 정보를 왜곡하여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선택한 대상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선택하지 않은 대상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을 더 정확히 기억하는 선택-지지적 편향(choice-supportive bias)을 보이기도 한다(Mather, Shafir, & Johnson, 2000). 이처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기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부정적 기억이 긍정적으로 왜곡되는 현상은 사람들이 현재의 자아상 및 자신이 추구하는 미래의 자기상에 맞추어 기억의 인출 단서(retrieval cue)를 형성(shaping)하기 때문에 발생한다(Conway, 2005). 스스로에 대한 바람직한 평가 및 긍정적 자기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하여 과거 경험

의 내용 및 그 중요성 등이 왜곡되는 것이다(Wilson & Ross, 2003).

자기 긍정 편향으로 인해 기억의 내용이 실제보다 더 긍정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자기 참조 효과와 기억 대상의 정서(valence)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특정 정보에 대한 자기 참조적 부호화의 효과는 해당 정보가 지닌 정서의 영향을 받는다. D'Argembeau, Comblain과 van der Linden(2005)에 따르면, 긍정적인 특질 형용사들은 타인 참조 조건에서보다 자기 참조 조건에서 더 정확하게 기억되었지만 부정적인 특질 형용사에 대한 기억은 두 조건 간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특히 주목할 사실은 이러한 결과가 자유 회상(free recall) 검사에서만 관찰되고 재인(recognition) 검사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회상 검사와 달리 인출 단서(retrieval cue)가 제공되는 재인 검사에서는 단어의 정서가 자기 참조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외적 단서 없이 스스로 인출 단서를 형성(self-generate)해야 하는 경우, 개인의 내적 동기가 인출 단서의 내용 및 중요성에 반영되고 이로 인해 기억의 자기 긍정 편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Conway & Pleydell-Pearce, 2000).

자기 참조 효과와 정서가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모두 항목 기억(item memory), 즉 기억의 개별 내용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기억의 기능은 과거 특정 경험의 발생 여부, 즉 사건 자체의 내용과 더불어 그 사건을 언제, 어디서, 어떤 맥락 하에 경험했는가, 즉 그 출처(source)를 기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철수에게서 들은 농담을 다시 철수에게 하지 않으려면 그 농담의 출처가 철수였음을 기억해야 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 믿을만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지식의 출처가 저명한 학술 논문이었는지 혹은 흥미 위주의 기사거리만을 신는 잡지였는지를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다. 출처 기억의 중요성 및 출처 판단의 작용 원리를 제안한 출처 점검 이론(source monitoring framework; Johnson, Hashtroudi, & Lindsay, 1993; Johnson & Raye, 1981)에 따르면, 출처 기억은 항목 기억이 형성될 때 부수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 인출 시 떠올린 정보의 다양한 속성과 그 평가를 바탕으로 재구성되는 것

이다. 즉, 기억 출처에 대한 판단에는 감각/지각적, 시공간적, 의미적 속성 등 실제 기억 자체가 지닌 정보와 더불어 개인의 일반적 지식, 믿음 등 기억 외적 정보들이 함께 고려되는데(Hicks & Cockman, 2003), 이 중 가장 진단적인(diagnostic) 정보에 근거하여 출처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다양한 진보적 또는 보수적 진술문에 대해 실제 출처와 상관없이 보수주의적 진술은 보수주의적 인물에게, 진보주의적 진술은 진보주의적 인물에게 출처 귀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출처 판단과 관련한 여러 정보 중 진보나 보수에 대해 개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일반적 지식이 가장 진단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Mather, Johnson, & DeLeonardis, 1999).

이러한 결과들은 자기 긍정 편향으로 인해 출처 기억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정 정보가 자기 또는 타인 중 누구를 참조하여 부호화되었는가 즉, 자아와의 관련성에 따라 그 정보의 정서가 출처 판단의 진단적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긍정적 측면은 타인보다 자신이 더 많이 가진 반면 부정적 측면은 자신보다 타인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기억의 외적 요소로 작용하여 자기를 참조했던 정보에 대해서는 긍정적 정서가, 타인을 참조했던 정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정서가 출처 판단의 진단적 정보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자신 또는 타인과의 관련성 판단을 두 가지 부호화 조건으로 하는 출처 점검 과제(Johnson & Raye, 1981)를 통해, 특질 형용사의 정서에 따라 출처 기억에서 나타나는 자기 참조 효과를 관찰하였다. 실험 1에서는 학습 단계 이후 즉시 기억 검사를 실시하였고 실험 2에서는 학습 후 약 24시간의 파지(retention) 간격을 두고 기억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 1

실험 1은 자기 긍정 편향에 의해 정보의 정서에 따라 항목 기억 및 출처 기억의 자기 참조 효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참가자들은 자기 참조 조건과 타인 참조 조건에서 각각 특질 형용사들을 학습한 직후에

단어에 대한 항목 재인 검사와 출처 기억 검사를 받았다. 자기 참조 효과는 타인 참조 조건과 자기 참조 조건 간의 항목 기억과 출처 기억의 차이로서 정의된다. 타인 참조 조건에 비해 자기 참조 조건에서 학습된 단어가 항목 재인 검사와 출처 기억 검사에서 정확히 기억되면 각각의 기억에서 자기 참조 효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실험에서 예상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선행 연구(D'Argembeau et al., 2005)와 같이 항목 재인 검사에서는 정서가와 무관하게 자기 참조 조건에서 학습된 단어가 타인 참조 조건에서 학습된 단어에 비해 더욱 정확히 재인될 것이다. 항목 재인 검사는 선행 연구 결과를 재현함으로써 본 연구의 실험 환경과 방법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본 연구의 초점인 출처 기억 검사의 결과를 기존 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둘째, 단어의 출처(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기억 검사에서도 타인 참조 조건보다 자기 참조 조건의 출처 기억이 더 정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항목 재인 검사와 달리, 출처 기억에서는 자기 긍정 편향으로 인해 단어의 정서가에 따라 자기 참조 효과의 크기가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예측에 따르면 참조 조건과 정서가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관찰되어야 한다.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패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자기 긍정 편향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1) 타인 참조 조건에서 학습한 긍정적 단어를 자기 참조 조건으로 잘못 귀인하게 하거나 2) 자기 참조 조건에서 학습한 부정적 단어를 타인 참조 조건으로 잘못 귀인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어느 경우가 되었든지 간에,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두 가지 출처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되므로 자기 참조 조건에서는 부정 형용사보다 긍정 형용사의 출처 기억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타인 참조 조건에서는 긍정 형용사보다 부정 형용사의 출처 기억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이다.

방 법

참가자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 24

명(여성 13명)이 크레딧 이수를 목적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2.8세(연령 범위: 19~28)였다. 참가자 모집과 실험 진행을 비롯한 전반적인 연구 절차는 연세대학교 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실시되었다.

실험 자극

실험 자극으로는 총 160개의 성격 특질 형용사가 사용되었다. 단어들은 Anderson(1968)의 연구를 참조하여 친숙성과 사용 빈도는 동일 수준을 보이되 정서가가 다른 200개의 단어들을 일차적으로 선정한 후, 연구자의 번역 및 이중 언어자의 역번역 과정을 거쳐 최종 선별되었다. 최종 선정된 단어들 중 절반인 80개의 단어들은 긍정적 특질 형용사였으며 나머지 절반은 부정적 특질 형용사로 구성되었다. 실제 실험에서 표적 단어는 긍정과 부정 각 40개씩 총 80개였으며, 나머지 단어들은 기억 검사 단계에서 비표적 단어로 사용되었다. 표적 단어로 사용된 형용사들은 각 정서가 조건별로 유의미한 음절수 차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 긍정과 부정 각 20개로 구성된 2개의 단어 목록으로 구분되었다. 각 영어 단어의 한국어 번역본에 대한 친숙성이나 사용빈도를 통제하지는 않았으나, 자기 참조 및 타인 참조 조건에 할당된 단어 목록들을 참가자간 역균형화하였으며 두 참조 조건 간 차이는 각 단어 자극 자체가 지닌 속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없다.

실험 장치

실험 과제의 제작, 자극 제시 및 반응 수집은 Matlab에서 작성된 프로그램을 통해 제어되었다(Brainard, 1997). 자극은 17 인치 모니터 상에 제시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약 60cm 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컴퓨터 자판을 통해 반응하였다.

실험 설계

실험 설계는 2(참조 조건: 자기 참조, 타인 참조) X 2(단어 정서가: 긍정, 부정)의 이요인 반복 측정 설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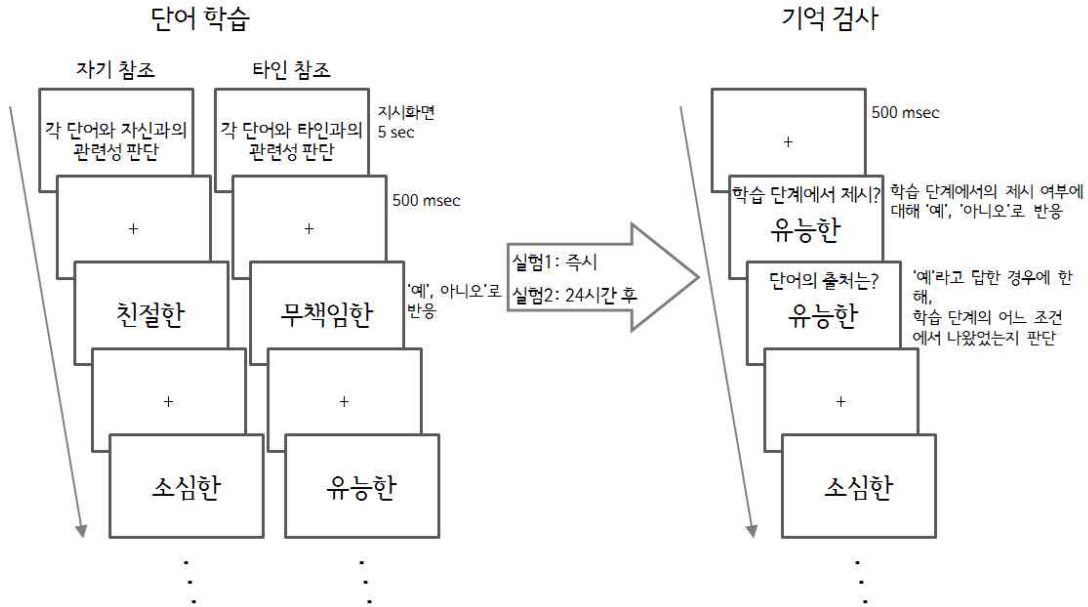


그림 1. 실험 각 단계의 간략한 방법 및 절차

서 두 독립 변인 모두 참가자내 변인이었다. 실험의 종속측정치로는 표적 단어에 대한 항목 재인 정확율과 정확하게 재인된 표적 단어에 대한 출처 기억 정확율이 사용되었다.

실험 절차

실험 시행에 앞서 참가자들은 참가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실험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학습 및 검사 단계를 실시하였다. 검사 단계는 학습 단계 직후 실시되었으며 총 실험은 약 25분 정도 소요되었다. 실험 종료 후, 실험의 목적 및 예상 결과에 대해 사후 설명이 제공되었다. 실험의 간략한 방법 및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학습 단계: 참가자들은 무선적 순서로 제시되는 긍정 또는 부정 형용사들을 보고, 참조 조건에 따라 각 단어가 자신 또는 타인을 잘 표현하는 지 판단하여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여야 했다. 타인 참조 조건에서 남성 참가자는 '장동건', 여성 참가자는 '이나영'을 참조하였는데, 비교적 잘 알려진 배우를 타인 참조의 대상으

로 제시함으로써 친숙하지 않은 타인을 제시했을 때에 비해 참가자간 변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각 단어는 500 msec 동안의 응시점 이후 모니터 중앙에 나타나 참가자가 반응할 때까지 제시되었다. 각 참조 조건은 구획(block)으로 나뉘어 참가자간 역균형화된 순서로 제시되었다.

검사 단계: 사전 예고 없이 기억 검사를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은 항목 재인 과제와 출처 기억 과제를 수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우선 각 단어가 학습 단계에서 나왔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였으며(항목 기억), '예'라고 응답한 단어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그 단어가 학습 단계의 어느 참조 조건(자기 또는 타인)에서 제시되었는지를 보고하였다(출처 기억). 각 단어에 대해 참가자가 항목 재인 반응을 하면 출처 기억에 대한 질문이 화면 상단에 제시되어 출처 기억 과제로의 전환을 알렸다. 두 기억 과제 모두 참가자가 반응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한 시행이 종료되면 모니터 중앙에 500 msec 동안 응시점이 제시된 후, 다음 시행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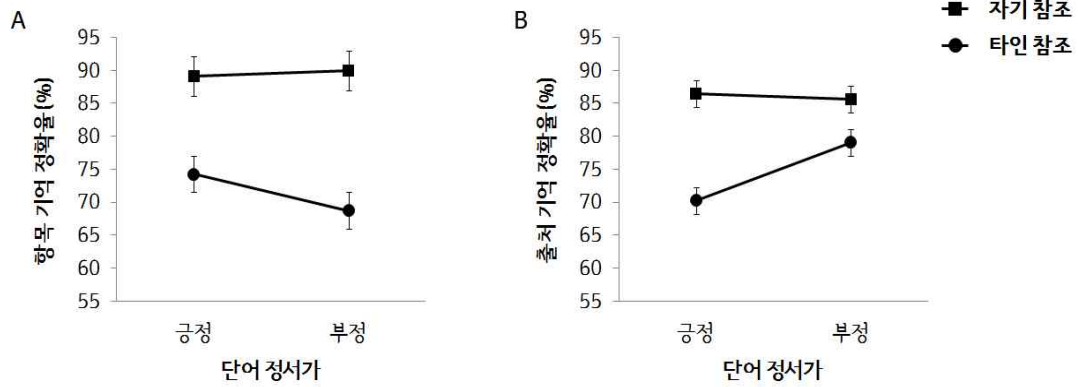


그림 2. 실험 1의 항목 기억 및 출처 기억 정확률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실험 1과 2)에서는 사전 분석 결과, 반응 시간 및 기억 정확률 등 어떤 항목에서도 참가자의 성별에 따른 주효과와 상호작용이 관찰되지 않았다, $F_s < 1$. 따라서 참가자의 성별에 따른 결과 분석 및 그와 관련된 논의는 생략하고자 한다.

학습 단계 반응 시간

학습 단계에서 각 단어가 자신 또는 타인을 표현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응답하기까지의 반응 시간을 각 조건별로 계산하여 2(참조 조건) X 2(단어 정서)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measure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참조 조건의 주효과, $F(1, 23)=.38, p=.55$, 단어 정서의 주효과, $F(1, 23)=1.79, p=.19$, 및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 효과 모두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23)=1.76, p=.20$. 이와 같은 결과는 이후 기억 과제 수행에서 관찰된 효과가 각 조건 간 부호화 시간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항목 재인 반응 시간

정확하게 재인된 단어들을 대상으로 재인 반응 시간을 종속측정치로 하여 2 X 2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

한 결과, 참조 조건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고, $F(1, 23)=24.40, p=.001, \eta_p^2=.53$, 단어 정서의 주효과도 유의미하였다, $F(1, 23)=16.50, p=.001, \eta_p^2=.43$. 그러나 두 요인 사이에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F(1, 23)=.84, p=.37$. 참가자들은 타인 참조 학습 조건에서 제시되었던 단어($M=4.31$ 초)에 비해 자기 참조 학습 조건($M=3.59$ 초)에서 제시된 단어들을 더 빠르게 재인하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긍정 형용사들($M=3.67$ 초)이 부정 형용사들($M=4.23$ 초)에 비해 유의미하게 빨리 재인되었다.

항목 재인 정확률

참가자들의 추측(guessing) 및 반응 편향성(response bias)로 인해 항목 재인 기억의 측정치가 정확한 기억을 반영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된 방법으로서 실제 학습 단계에서 제시되었던 표적 단어를 앞선 단계에서 보았다고 제대로 응답한 정반응율(hit rate)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비표적 단어들을 앞선 단계에서 보았다고 잘못 보고한 오반응율(false alarm rate)을 감산한 후, 오반응율이 고려된 전체 단어 비율로 나누어 계산된 정확 재인율 $[(\text{정반응}-\text{오반응})/(1-\text{오반응})]$; Dobbins, 2001; Hicks & Marsh, 1999)을 각 조건별로 계산하여 2 X 2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참조 조건의 유의미한 주효과가 확인되었다, $F(1, 23)=32.87, p=.001, \eta_p^2=.60$.

그러나 단어 정서가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F(1, 23)=1.04, p=.32$, 상호작용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23)=2.75, p=.11$. 그림 2A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항목 자체에 대한 재인 기억에서는 자기 참조 효과가 자기 긍정 편향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본 실험의 예측대로, 참가자들은 단어의 정서가와 상관없이 자기 참조 조건에서 학습한 단어들($M=89.52\%$)을 타인 참조 조건에서 학습한 단어들($M=71.50\%$)에 비해 더 정확히 재인하였다.

항목 재인 검사의 결과는 D'Argembeau 등(2005)의 재인 검사 결과와 일치한다. 인출 단서가 주어지는 재인 기억 검사에서 정서가는 자기 참조 효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또한, 타인 참조 조건에서 부정적 단어들의 재인 정확률이 긍정적 단어들 보다 높지 않았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이미지의 배우들을 타인 참조의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타인 조건에서 제시된 부정적 단어는 주의를 끌게 되어 잘 기억될 것이고 긍정적 단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출처기억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배우들에 대한 항목 기억은 수치상으로 긍정적 단어 조건에서 더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 단락에서 보고할 출처 기억의 자기 긍정 편향이 실험 조건에 의해 인위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한다.

출처 기억 반응 시간

출처가 정확히 기억된 단어들에 대한 반응 시간을 종속측정치로 하여 2 X 2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참조 조건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였다, $F(1, 23)=5.15, p=.033, \eta_p^2=.16$. 그러나 단어 정서가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F(1, 23)=2.14, p=.16$, 상호작용 또한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23)=1.19, p=.29$. 즉, 참가자들은 타인 참조 조건에서 제시되었던 단어($M=7.46$ 초)에 비해 자기 참조 조건($M=6.78$ 초)에서 제시된 단어들의 출처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기억해냈다.

출처 기억 정확율

출처가 정확히 기억된 단어 수를 재인된 표적 단어

수로 나누어 출처 기억 정확율을 계산하고 2 X 2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참조 조건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였으나, $F(1, 23)=18.04, p=.001, \eta_p^2=.45$, 단어 정서가의 주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F(1, 23)=2.33, p=.14$. 즉, 참가자들은 자기 참조 조건에서 학습한 단어의 출처를 타인 참조 조건에 비해 더 정확히 기억하였다(86.02% 대 74.67%).

가장 중요한 결과는 자기 긍정 편향으로 인해 정서가에 따라 자기 참조 효과 크기가 달라지리라는 본 연구의 가설대로, 참조 조건과 단어 정서가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했다는 점이다, $F(1, 23)=4.57, p=.043, \eta_p^2=.17$. 그림 2B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자기와 타인 조건 사이의 출처 기억 정확율 차이는 긍정 형용사($M=16.18\%$)보다 부정 형용사($M=6.53\%$)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기 참조 효과의 감소는 자기 참조 조건에서 부정 형용사에 비해 긍정 형용사에 대한 출처기억 정확율이 높았기 때문이 아니라 (긍정 형용사 $M=86.44\%$, 부정 형용사 $M=85.60\%$), $t(23)=.93, p=.36$, 타인 참조 조건에서 긍정 형용사에 비해 부정 형용사에 대한 출처기억 정확율이 높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긍정 형용사 $M=70.26\%$, 부정 형용사 $M=79.07\%$), $t(23)=2.80, p=.01$.

자기 긍정 편향은 타인 참조 조건에서 학습된 긍정적 단어의 출처를 자기 참조 조건으로 오귀인하거나 자기 참조 조건에서 학습된 부정적 단어의 출처를 타인 참조 조건으로 오귀인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본 실험에서는 전자의 경우만이 관찰되고 있다. 자기 참조 효과가 부정적 단어보다 긍정적 단어에서 더 컸다는 사실은 자기 참조적 출처 기억에서의 자기 긍정 효과가 부정적 정서가보다는 긍정적 정서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재인된 단어에 대한 출처 귀인 양상

출처 기억에서 부정 형용사에 대해 자기 참조 효과가 감소한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정보를 자신에게 귀인하고 부정적인 정보를 타인하게 귀인하는 반응 편향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비표적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표적 단어로 잘못 재인된 단어들에 대한

출처 귀인 양상을 확인하였다. 오제인된 단어들을 자기 참조 또는 타인 참조 조건으로 출처 귀인한 개수를 각 정서가별로 계산하고, 이 값에 대해 대응 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오제인된 긍정 형용사를 자기 또는 타인 참조 조건으로 출처 귀인한 횟수뿐만 아니라, $t(23)=.60, p=.55$, 오제인된 부정 형용사를 자기 또는 타인 조건으로 출처 귀인한 횟수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t(23)=1.25, p=.22$. 이러한 결과는 출처 기억에서 부정 단어에 대해 자기 참조 효과가 감소한 것이 참가자들의 편향적 응답 경향성 때문이 아님을 의미한다.

항목 재인과 출처 기억은 학습 단계에서 특질 형용사에 대한 참가자들의 반응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즉, 자기(또는 타인) 도식과의 일치 정도에 따라서 해당 형용사에 대한 후속 기억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본 연구에서는 학습 단계 동안의 반응(“예” 또는 “아니오”)을 고려하여 참조 조건과 단어 정서가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을 만큼의 시행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 자기 참조 효과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도 학습 단계의 반응에 따른 결과 분석을 생략하고 있다(예, D'Argembeau et al., 2005). 그 이유는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시행수가 부족했거나 자기 참조 효과가 반응에 상관없이 발생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도식과의 일치 여부에 따른 후속 기억의 양상은 중요한 주제이며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실험 1에서 항목 기억은 정서가와 무관하게 전형적인 자기 참조 효과를 보였지만, 출처 기억은 긍정 형용사에 비해 부정 형용사에서 자기 참조 효과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부정적 단어에 대한 자기 참조 효과의 감소가 자기 관련 긍정적 정보의 편향적 인출 및 타인 관련 부정적 정보의 편향적 인출로 인해 비롯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본 실험에서는 타인 관련 부정적 정보의 편향적 인출만이 관찰되었다. 그 이유는 기억 검사가 학습 직후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자기 참조 조건에서 출처 기억이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천정효과). 실험 2는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실험 2

실험 2는 실험 1의 결과를 재현함과 동시에 학습과 검사의 시간 간격이 비교적 길 때에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검토하였다. 본 실험은 학습 단계와 기억 검사 단계 사이에 약 24시간의 파지 간격을 두어 총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실험 2에서도 자기 긍정 편향으로 인해 출처 기억에서 긍정적 단어에 비해 부정적 단어에 대한 자기 참조 효과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특히 실험 1의 결과에서 미루어 짐작된 천정 효과는 긴 파지 시간으로 인해 사라질 것이므로, 실험 2에서는 자기 긍정 단어에 대한 출처 기억 편향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실험 2에서 사용된 방법과 분석 절차는 아래 언급된 내용을 제외하고 실험 1에서 사용된 방법 및 분석 절차와 일치하였다.

방 법

참가자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 28명(여성 17명)이 크레딧 이수를 목적으로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20.55세(연령 범위: 19~26)였다.

실험 자극

단어 학습과 기억 검사 단계 사이에 약 24시간의 파지 간격이 주어졌다.

결과 및 논의

학습 단계 반응 시간

유의미한 참조 조건의 주효과가 관찰되었다, $F(1, 27)=9.15, p=.005, \eta_p^2=.25$. 그러나 단어 정서가의 주효과, $F(1, 27)=2.18, p=.15$, 및 두 요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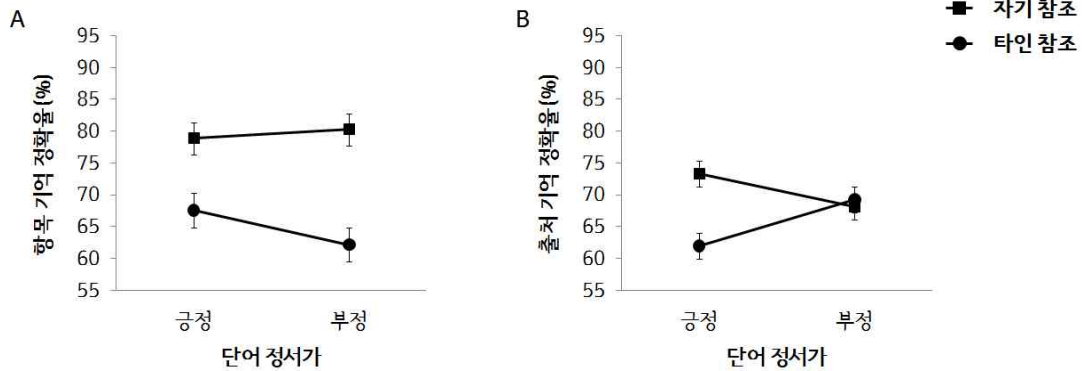


그림 3. 실험 2의 항목 기억 및 출처 기억 정확율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27)=2.69, p=.11$. 실험 1에서와 달리 참가자들은 자기 참조 조건의 단어들($M=2.05$ 초)을 타인 참조 조건의 단어들($M=2.29$ 초)에 비해 더 빨리 판단하였다. 만약 항목 재인과 출처 기억에서의 자기 참조 효과가 부호화 시간차에 의해 인위적으로 발생한다면 자기 참조 조건의 단어들은 타인 참조 조건에 비해 덜 기억되어야 한다. 후속 분석 결과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학습 반응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참조 조건의 단어는 더 정확히 기억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 참조 효과가 단순히 부호화 처리 수준 보다는 자아 도식의 독특성을 반영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Maki & McCaul, 1985; Rogers et al., 1977).

항목 재인 반응 시간

유의미한 참조 조건의 주효과가 관찰되었다, $F(1, 27)=5.08, p=.03, \eta^2_p=.16$. 단어 정서의 주효과는 유의미한 경향성을 보였으며, $F(1, 27)=4.20, p=.05, \eta^2_p=.14$, 두 요인 사이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27)=1.24, p=.28$. 즉, 타인 참조 조건에서 제시되었던 단어($M=4.07$ 초)에 비해 자기 참조 조건에서 제시된 단어들($M=3.64$ 초)이 더 빠르게 재인되었으며, 또한 부정 형용사들($M=4.06$ 초)에 비해 긍정 형용사들($M=3.65$ 초)이 더 빠르게 재인되었다.

항목 재인 정확율

유의미한 참조 조건의 주효과가 관찰되었다, $F(1, 27)=32.87, p=.001, \eta^2_p=.60$. 그러나 단어 정서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F(1, 27)=1.04, p=.32$, 두 요인 사이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23)=.75, p=.11$. 그림 3A에 제시된 바와 같이, 참가자들은 단어의 정서가와 무관하게 자기 참조 조건에서 학습한 단어들($M=89.52\%$)을 타인 참조 조건에서 학습한 단어들($M=71.50\%$)에 비해 더 정확히 재인하였다.

출처 기억 반응 시간

참조 조건의 주효과, $F(1, 27)=.19, p=.67$, 단어 정서의 주효과, $F(1, 27)=.002, p=.97$, 및 두 요인간 상호작용이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27)=1.27, p=.27$.

출처 기억 정확율

참조 조건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F(1, 27)=1.53, p=.23$, 단어 정서의 주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27)=.35, p=.56$. 그러나 참조 조건과 단어 정서가 사이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관찰되었다, $F(1, 27)=6.86, p=.014, \eta^2_p=.20$. 즉,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출처 기억에서 자기 참조 효과의 크기는 긍정 형용사보다 부정 형용사에 대해 감소하였다.

그림 3B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긍정 형용사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자기 참조 효과가 나타났으나(자기 참조 $M=73.32\%$ 대 타인 참조 $M=61.96\%$), $t(27)=2.49$, $p=.019$, 부정 형용사에 대해서는 자기 참조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자기 참조 $M=68.13\%$ 대 타인 참조 $M=69.24\%$), $t(27)=.22$, $p=.83$. 예상했던 대로, 과제 기간을 연장한 본 실험에서는 자기 참조 조건에서 부정 형용사($M=68.13\%$)보다 긍정 형용사($M=73.32\%$)에 대한 출처 기억이 정확했다, $t(27)=2.16$, $p=.04$. 또한 실험 1과 마찬가지로, 타인 참조 조건에서는 긍정 형용사($M=61.96\%$)보다 부정 형용사($M=69.24\%$)에 대한 출처 기억이 정확했다, $t(27)=2.11$, $p=.044$.

오제인된 단어에 대한 출처 귀인 양상

오제인된 긍정 형용사를 자기 또는 타인 참조 조건으로 출처 귀인한 횟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t(27)=-.69$, $p=.50$, 오제인된 부정 형용사를 자기 또는 타인 참조 조건으로 출처 귀인한 횟수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27)=1.46$, $p=.16$. 이 결과는 실험 1과 동일하며, 부정적 정보의 출처 기억에서 자기 참조 효과가 사라진 것이 단순히 참가자들의 응답 편향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실험 2에서는 과제 기간을 늘려 기억 수행의 천정 효과를 줄임으로써 실험 1의 결과를 재현함과 동시에 새로운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자기 참조 조건에서는 긍정적 정보의 출처를 더 정확히 기억하는 반면 타인 참조 조건에서는 부정적 단어의 출처를 더 잘 기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정적 정보에 대한 출처 기억에서는 자기 참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 긍정 편향으로 인해 자아와의 관련성에 따라 서로 다른 정서가가 출처 판단의 진단적 근거로 작용하고, 이에 따른 자기-긍정 및 타인-부정 출처 기억 편향으로 인해 정서가별 자기 참조 효과의 크기가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종합 논의

본 연구는 자기 긍정 편향으로 인해 기억 내용의 정

서가에 따라 출처 기억에서 자기 참조 효과의 크기가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긍정과 부정 형용사에 대해 한 조건에서는 자기를 참조하여 부호화하고 다른 조건에서는 타인을 참조하여 부호화하도록 한 후, 사전 예고 없이 기억 검사를 실시하여 각 단어에 대한 항목 기억 및 출처 기억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학습 맥락과 상관없이 단어 자체에 대한 기억만을 요구하는 항목 기억에서는 학습 직후 기억 검사를 실시한 실험 1과 24시간의 과제 간격을 도입한 실험 2 모두에서 정서가에 따른 자기 참조 효과의 크기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정서가와 상관없이 자기 참조 조건에서 부호화된 단어들에 타인 참조 조건에서 부호화된 단어에 비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제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각 단어가 자기 또는 타인 중 어느 조건에서 부호화되었는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출처 기억의 경우, 타인 참조 조건에서는 긍정적 단어에 비해 부정적 단어에 대한 정확률이 높았고(실험 1과 2) 자기 참조 조건에서는 부정적 단어에 비해 긍정적 단어에 대한 정확률이 높았다(실험 2). 그 결과, 두 실험 모두에서 출처 기억의 자기 참조 효과는 부정적 단어인 경우에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기 긍정 편향으로 인해 특정 기억의 출처가 자기와의 관련성과 기억이 지니는 정서가에 따라 왜곡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그동안 자전적 기억 및 항목 기억을 대상으로만 연구되어 온 자기 긍정 편향 현상이 출처 기억에서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사건 자체의 선택적 인출 및 왜곡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한 기억과 출처를 연합하는 과정에도 자기 긍정 편향이 작용하여 사건의 정서가와 자아의 관련성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이를 통해, 기억이 긍정적 자기 지각과 고양적 자아상의 유지 및 촉진에 기여하는 역할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의 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억 내용이 지닌 질적 속성으로서의 정서가가 단순히 출처 판단 과정에 있어 변화하지 않는 속성을 지닌 입력 정보(input)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출 당시 개인의 동기, 즉 자기 긍정 편향의 영향으로 인해 출처에 따라 해당 정보의 상대적 중요성이 달라짐을 보임으로써 개인이 지닌 동기, 욕구, 믿음 등의 외적 맥락요소가 출

처 판단 과정에 작용하는 한 가지 원리를 파악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의 결과는 기억 자체의 속성인 정서가와 기억 외적 맥락 요소로서 개인의 자기 긍정 편향 사이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사람들이 자기 긍정 편향적 자기 지각에 일치하는 정보, 즉 자신 관련 긍정적 단어와 타인 관련 부정적 단어를 이러한 편향에 일치하지 않는 정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진단적이고 현저한(vivid) 것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시사해주는 것이다(Hicks & Cockman, 2003; Mather et al., 1999). 자기 긍정 편향이 인출 단서를 형성할 때 발휘하는 이와 같은 영향력은 충분한 외부적 인출 단서가 주어지지 않은 항목 기억 재인 검사에서는 자기 긍정 편향적 기억 편파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설명력을 가진다(D'Argembeau et al., 2005).

본 연구에서 확인된 자기-긍정적 출처 기억 편향과 타인-부정적 출처 기억 편향과 관련하여 과연 이러한 기억 현상이 얼마만큼 추론, 유추 등의 비(非)기억적 판단 과정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 기억을 반영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출처 기억 과정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분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Johnson et al., 1993). 왜냐하면 '무엇을 기억한다'는 행위 자체와 이에 대한 판단 과정이 서로 떼어낼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이 현재 활성화된 어떤 심적 표상(예: 1 리터당 높은 연비)이 지금 막 새롭게 지각된 것이 아니라 과거 경험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 다시 말해 해당 표상을 기억의 일부로 여긴다는 것 자체가 이미 휴리스틱(heuristic) 및 체계적 판단 과정을 거쳐 현재 떠올린 심상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과거의 특정 경험(예: 얼마 전 TV에서 접한 자동차 광고)으로서의 기준에 부합함을 앞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심적 표상이 개인의 동기, 믿음 등으로 인해 편향적으로 기억되거나 왜곡된다고 할지라도 개인에게 있어 그러한 표상은 주관적 '기억'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잘못된 기억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높은 확신 수준을 보이거나 그 기억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밝힌 많은 선행 연구들이 주관적 기억의 이러한 속성을 지지하고 있다(Mather, Henkel, & Johnson, 1997; Norman & Schacter, 1997; Roediger & McDermott, 1995).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자기-

긍정적 및 타인-부정적 방식의 출처 기억 편파가 가진 함의는 이러한 편향이 얼마나 참가자 개인의 주관적 기억을 잘 반영하는가가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 이러한 편향적 기억이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에 있다.

이성적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개인의 과거 경험은 마땅히 현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진실된 방식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편향되거나 왜곡되지 않은 기억을 통해 실제 현실에 기반하고 있는 균형 잡힌 정보들을 축적함으로써 사람들은 참된 자기를 알게 되고, 나아가 이러한 자기 이해를 통해 직업 선택 및 대인 관계 등의 사회생활에서 실제 자기 자신에게 더 어울리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장기적 관점에서도 참된 자기를 알고 이에 따라 미래를 계획하고 자신이 목표한 바를 성취하는 것이 개인의 삶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Strube, 1990; Trope, 1986). 그러나 한편으로는 특정 정보가 현실을 반영하여 참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로 인해 개인의 긍정적 자기상이 침해되거나 훼손될 여지가 있는 경우(부정적 피드백, 실패 경험 등)에는 이러한 정보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것, 즉 이러한 정보를 기억하지 않거나 해당 정보의 출처를 자기와 관련하지 않은 것으로 왜곡하여 기억하는 것 또한 개인의 삶에 실용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가령,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보임에 미루어볼 때(Alicke et al., 1995; Schwartz, 1986),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긍정적 정보를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사람들이 과거, 현재, 나아가 미래의 자기상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통합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도록 할 것이다(Swann, 1987). 또한 긍정적 자기상을 유지함으로써 사람들은 삶에 대한 낙관적 관점을 견지하고 자기 효능성(self-efficacy)을 경험하여 심리적으로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Taylor & Brown, 1988; Taylor et al., 2003; Walker, Skowronski, & Thompson, 2003). 우울 성향의 사람들에게서는 자기 긍정적 기억 편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Kuiper & Derry, 1982; Sanz, 1996), 이러한 연구 결과 역시 자기 긍정 편향 및 이로 인한 기억 편파가 질병 발병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신념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Weinstein, 1989) 개인의 사회 적응 및 건강한 삶의 영위에 있어 순기능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주로 부정적 측면에서 논의되어 온 출처 기억의 편향적 인출 및 왜곡이 개인의 자기상을 위협하는 부정적 정보에 대한 방패막이로 기능하여, 자기 고양 동기의 실현 및 긍정적 자기상의 유지 및 촉진에 기여하는 순기능적 역할 또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하는 것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 반드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점은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자기-긍정적 및 타인-부정 출처 기억 편향이 자기 긍정 편향적 지각에 일치하는 정보들에 대한 진단성 촉진(enhancement)에 의한 것인지, 이러한 지각에 일치하지 않는 정보들에 대한 진단성 억제(inhibition)로 인한 것인지, 또는 이 두 과정 모두가 작용한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 긍정 편향이 어떠한 원리를 거쳐 특정 정서가의 정보를 상대적으로 더 진단적으로 만드는가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끝으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성격 특질 형용사(예: 믿음만한)를 제시하는 경우와 해당 성격 형용사의 의미를 행동적으로 묘사한 진술('나는 친구에게 빌린 돈을 제 때 갚을 것이다')을 제시하는 경우, 자기 관련 조건의 행동적 진술문들이 단독 제시된 형용사에 비해 더 정교하게(elaborative)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며(Sedikides & Green, 2000), 부정적 성격 특질 형용사의 속성이 수정가능(modifiable) 것일 때에는 이러한 성격에 대한 사람들의 자기 긍정 편향, 즉 남에 비해 자신이 덜 부정적이라고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unning, 1995). 이러한 사실은 본 연구에서 성격 형용사를 사용해 관찰한 결과가 다른 종류의 정보들에 대해서도 일반화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의문점들을 추후 연구를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Alicke, M. D., Klotz, M. L., Breitenbecher, B. L., Yurak, T. J., & Vredenburg, D. S. (1995). Personal contact, individuation, and better-than-average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804-825.
- Anderson, N. H. (1968). Likableness ratings of 555 personality-trait wor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 272-279.
- Bahrack, H. P., Hall, L. K., & Berger, S. A. (1996). Accuracy and distortion in memory for high school grades. *Psychological Science, 7*, 265-271.
- Bower, G. H., & Gilligan, S. G. (1979). Remembering information related to one's self.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3*, 420-432.
- Brainard, D. H. (1997). The Psychophysics Toolbox. *Spatial Vision, 10*, 433-436.
- Conway, M. A. (2005). Memory and the self.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53*, 594-628.
- Conway, M. A., & Pleydell-Pearce, C. W. (2000). The construction of autobiographical memories in the self memory system. *Psychological Review, 107*, 261-288.
- Damasio, A. R. (1999). *The feeling of what happens: Body and emotion in the making of consciousness*. New York: Harcourt Brace.
- D'Argembeau, A., Comblain, C., & van der Linden, M. (2005). Affective valence and the self-reference effect: Influence of retrieval condition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96*, 457-466.
- Dobbins, I. G. (2001). The systematic discrepancy between A' for overall recognition and remembering: a dual-process account.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8*, 587-599.
- Dunning, D. (1995). Trait importance and modifiability as factors influencing self-assessment and self-enhancement moti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1297-1306.
- Hicks, J. L., & Cockman, D. W. (2003). The effect of general knowledge on source memory and decision processes. *Journal of Memory and*

- Language*, 48, 489-501.
- Hicks, J. L., & Marsh, R. L. (1999). Remember-know judgments can depend on how memory is tested.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6, 117-122.
- Johnson, M. K., Hashtroudi, S., & Lindsay, D. S. (1993). Source monitoring. *Psychological Bulletin*, 114, 3-28.
- Johnson, M. K., & Raye, C. L. (1981). Reality monitoring. *Psychological Review*, 88, 67-85.
- Kuiper, N. A., & Rogers, T. B. (1979). Encoding of personal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499-514.
- Kuiper, N. A., & Derry, P. A. (1982). Depressed and non-depressed content in self-reference in mild depressives. *Journal of Personality*, 50, 67-79.
- Leary, M. R. (2004). The self we know and the self we show: Self-esteem, self-presentation, and the maintena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M. B. Brewer & M. Hewstone (Eds.), *Emotion and motivation* (pp. 204-224). Malden, MA: Usisher.
- Maki, R. H., & McCaul, K. D. (1985). The effects of self-reference versus other reference on the recall of traits and nouns. *Bulletin of the Psychonomic Society*, 23, 169-172.
- Markus, H. (1977). Self-schemata and processing information about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63-78.
- Mather, M., & Henkel, L. A., & Johnson, M. K. (1997). Evaluating characteristics of false memories: Remember/know judgments and memory characteristics questionnaire compared. *Memory & Cognition*, 25, 826-837.
- Mather, M., Johnson, M. K., & DeLeonardis, D. M. (1999). Stereotype reliance in source monitoring: Age differences and neuropsychological test correlates. *Cognitive Neuropsychology*, 16, 437-458.
- Mather, M., Shafir, E., & Johnson, M. K. (2000). Misremembrance of options past: Source monitoring and choice. *Psychological Science*, 11, 132-138.
- Neisser, U. (1988). Five kinds of self-knowledge. *Philosophical Psychology*, 1, 35-59.
- Norman, K. A., & Schacter, D. L. (1997). False recognition in younger and older adults: Exploring the characteristics of illusory memories. *Memory & Cognition*, 25, 838-848.
- Roediger, H. L., & McDermott, K. B. (1995). Creating false memories: Remembering words not presented in list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21, 803-814.
- Rogers, T. B., Kuiper, N. A., & Kirker, W. S. (1977). Self-reference and the encoding of personal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677-688.
- Sanz, J. (1996). Memory biases in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Cognition and Emotion*, 10, 87-105.
- Schacter, D. L. (1999). The seven sins of memory. *American Psychologist*, 54, 182-203.
- Schwartz, R. M. (1986). The internal dialogue: On the asymmetry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coping thought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0, 591-605.
- Sedikides, C. (1993). Assessment, enhancement, and verification determinants of the self-evaluation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317-338.
- Sedikides, C., & Green, J. D. (2000). On the self-protective nature of inconsistency-negativity management: Using the person memory paradigm to examine self-referent mem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906-922.
- Silverman, I. (1964). Self-esteem and differential responsiveness to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9, 115-119.
- Strube, M. J. (1990). In search of self: Balancing the good and the true.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Bulletin*, 16, 699-704.
- Symons, C. S., & Johnson, B. T. (1997). Self-reference and the encoding of personal inform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21, 371-394.
- Swann, W. B., Jr. (1987). Identity negotiation: Where two roads mee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038-1051.
- Taylor, S. E., & Brown, J. D. (1988).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 Taylor, S. E., Lerner, J. S., Sherman, D. K., Sage, R. M., & McDowell, N. K. (2003). Portrait of the self-enhancer: Well adjusted and well liked or maladjusted and friendl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165-176.
- Trope, Y. (1986). Self-enhancement and self-assessment in achievement behavior. In R. M. Sorrentino & E. T. Higgins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 (pp. 350-378). New York: Guilford Press.
- Turk, D. J., Cunningham, S. J., & Macrae, C. N. (2008). Self-memory biases in explicit and incidental encoding of trait adjectives. *Consciousness and Cognition*, 17, 1040-1045.
- Walker, W. R., Skowronski, J. J., & Thompson, C. P. (2003). Life is pleasant - and memory helps to keep it that way!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4, 203-210.
- Weinstein, N. D. (1989). Optimistic biases about personal risks. *Science*, 246, 1232-1233.
- Weinstein, N. D., & Klein, W. M. (1996). Unrealistic optimism: Present and futur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5, 1-8.
- Wilson, A. E., & Ross, M. (2003). The identify function of autographical memory: Time is on our side. *Memory*, 11, 137-149.

Self-positivity Bias in Self-referential Source Memory

Kyugmi Kim Do-Joon Yi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 magnitude of self-reference effects would differ for positive versus negative information as a function of self-positivity bias within a source monitoring paradigm. In Experiment 1 where a memory test immediately followed a learning phase, the size of self-reference effects was significantly larger for the positive words compared to negative words. This decrease in the magnitude of self-reference effects for negative words was found to be more pronounced in Experiment 2 where a 24-hour interval was introduced between learning and memory test phases: no self-reference effect for negative words. The present findings suggest that due to the self-positivity bias, the association between a memory and its source become systematically biased toward positivity when a memory is self-relevant as well as toward negativity when a memory is about others. Overall, the current findings provide support for the crucial role of memory in maintaining and enhancing positive self-image and further suggest that memory bias, which has mostly been discussed for its negative consequences, may serve a functionally adaptive role by enhancing individuals' positive self percep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Keywords : self-positivity bias, self-reference effect, source memory, source monitoring, memory bias

1차원고 접수일 : 2010년 1월 8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0년 2월 19일
게재 확정일 : 2010년 2월 20일